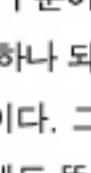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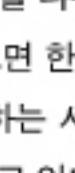


2014『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 UCC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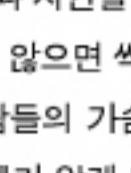
구 분	소 재	세 부 내 용
에세이 부문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자료(외국 교과서 포함)에 나타난 한국이미지 - 외국에서의 한국이미지 제고 방안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 한국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UCC 부문	한국바로알리기	- 해외에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역사·문화관련 창작 동영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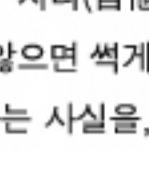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하늘담은 꽃담, 하늘담은 사람들의 노래

담은 구분이다. 때론 나와 너를 나누며, 때론 인간과 자연을 가른다. 궁극적으로는 '자타(自他)'란 담을 사정없이 허물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사랑도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된다. 사랑은 정말 흘러야 제맛이다. 그래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도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 가슴에도 똑같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교류'의 기쁨은 아닐까.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상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는 '소통과 나눔의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 전파의 빛깔이리라. 담의 다른 말인 물은 곧 우주를 뜻하니 또 다른 우주의 경계선인 셈이다. 스쳐지나 가면 그저 벽일 뿐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문화의 멋과 흥이 숨어 꿈틀거리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네 담이 있다.

(전통)꽃담, 말부터 참 예쁘다. 꽃담은 소통이다. 집주인의 성품을 드러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꺼이 초청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도 소망한다. '여기는 내 땅이야', '타인 출입금지'식의 엄포가 없다. 질박하면 질박한 대로, 화려하면 화려한 대로 여유와 만족을 안다. 우리네 조상들의 마음씨를 배달았다. 그러나 속도와 경쟁에 정신을 앗긴 우리는 청맹과니처럼 스쳐 보냈을 뿐이다. 꽃담(기와 또는 전돌로 만든 전통담장, 굴뚝, 합각의 통칭)을 통해 선조들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한편 느리게 가는 세상살이의 교훈을 오늘도 배운다.

올해로 전국의 (전통)꽃담을 찾아 나선지 16년째로,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작업은 오늘도 시내버스, 고속버스, 기차를 타고 계속되면서 훗날의 기록으로 남겨 놓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스폰서도 없으며, 행정 당국의 지원도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내 삶의 일부다.

하지만 꽃담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있다 하더라도 전북 임실의 녹천재처럼 건물 벽에 꼭꼭 숨어 있다. 그래서 꽃담기행은 언제나 숨바꼭질과 같다. 종종 한문 실력도 한몫을 거들기도 한다. 벽화형 꽃담이 아름다운 전북 익산의 김안균 가옥을 찾을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비문을 해석해줬더니 언제든 와도 좋다는 말을 듣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서울(11곳), 경기도(7곳), 강원도(2곳), 충청도(10곳), 전북(37곳), 전남(5곳), 경상도(15곳)로 확인돼 전북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꽃담을 간직한 꽃담 1번지임을 직접 확인했다.(궁, 능, 흙돌담길, 사고석담 혼하기 때문에 제외) 하지만 관계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선의 굽기와 모양 등을 비교해 살펴볼 수 있는 임실 사선대의 꽃담은 와편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하지만 최근 들어 자취를 감추고 있소 아쉬움을 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엔 보물 제811호 경복궁 아미산의 굴뚝, 보물 제810호 경복궁 자경전 짐장생 굴뚝, 보물 제350호 대구 도동서원 강당 사당부 장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 낙산사 원장 등 4종의 꽃담만이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여타의 꽃담은 기와 및 전돌로 만든 까닭에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세인의 관심 밖으로 점차 밀려나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길상적인 의미를 지닌 글자나 꽃, 동물 등 무늬를 넣어 주변의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꾀한 선조들의 삶과 염원이 담긴 꽃담은 세계적으로도 천민과 양반, 궁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드문 소재인 만큼 세계에 널리 알려도 손색이 없는, 흙으로 만든 마지막 문화유산인 셈이다. 봄이 오면 담쟁이덩굴이 휙감고 가을이 오면 빨간 흥시와 낙엽으로 단장하던 나지막한 꽃담은 화석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꽃담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걷고 싶은 길의 새로운 테마가 될 것이 분명하리라.

(II)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순천 낙안읍성, 성주 한개마을, 전주 한옥마을 작은 안마당 장독대에 석양빛 서서히 내리고 있다. 붉은 햇살은 처마에 걸터 앉았다가 한나절 잘 쉬었다 간다고 인사를 한다. 대금소리와 함께 탁탁탁탁 불지피우는 소리가 들리면 목청 큰 소리꾼의 함성 잔잔해지면서 밤은 이내 더욱 깊어지고 그윽한 정취를 선사한다.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들 마을의 이른 아침. 달그락 달그락 그릇을 옮기는 소리와 인근 향교와 서원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은 게으른 사람들의 늦잠을 막는 훠방꾼으로 다가온다. 꽃단장을 한후 마일간 하늘 아래, 둘 안에 심어놓은 감나무, 은행나무 등이 들여다 보이는 틈새로 꽃담을 보는 즐거움이 더해졌으니, 공자처럼 '지극히 아름답고 또 더 이상 더할 것 없이 좋다'는 희열 고스란히 담아본다.

흙빛처럼 속살거리며 영롱한 꽃담으로 노년 뒤, 기꺼이 낙산사 원장처럼 '햇님, 달님, 별님' 음덕 마음속에 차분히 새겨놓고 최명희의 '흔불'과 춘향전의 춘향이 되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옛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그들은 흙담을 쌓아 흙이 주저앉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돌을 박거나 때론 깨진 기와를 섞어 무늬를 넣어 꽃담을 만들기도 했으며, 금상첨화로 길상적인 의미를 지닌 글자 또는 꽃, 동물 등의 무늬를 넣어 주변의 건축이나 자연과의 조화된 삶을 염원했다.

경복궁 교태전 뒤편 아미산 동산을 연결시킨 꽃담은 우아하면서 단아한 국모의 성품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창덕궁 낙선재 후원의 꽃담은 흥선대원군의 묵란도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듯 정갈한 예술성을 뽐낸다. 그러나 덕수궁 꽃담 사이로 보이는 자그마한 유현문은 조선조가 비운의 역사, 설움의 역사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눈치다.

송광사 침계루 통풍구의 네 장의 꽃 이파리는 붉은 나무 기둥과 푸른 창문과 노란 벽면이 주변의 초록 빛깔과 어우러지면서 수려한 풍광이 그만이지만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과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아는' 세상살이를 일러준다.

운강고택 화방벽은 '길'자와 꽃잎 모양의 아기자기한 무늬가 서로 만나면서 상생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며,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화방벽의 '부'자와 '귀'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부딪침을 다스리되 유물적인 부귀를 멀리하는 자타일체의 경지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무시무종(無始無終)',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장수 무늬 꽃담-. 화려하되 아하지 않고 은근한 멋을 풍기는 삶의 꽃밭으로 슬며시 다가온다.

오늘도 '슬퍼하되 비탄에 빠지지는 말고, 즐거워도 정도를 넘으면 안된다'는 말을 반추하듯 영원히 시들 줄을 모르며 방실방실 사람들을 맞고 있다.

꽃담은 담백하고 청아하며 깔끔하며 순박한 한국의 멋, 아름다움 그 자체-. 깊은 밤 꽃담 저 멀리, 꽃살에 붙은 창호지 틈새로 은은한 달빛이라도 새어들 양이면 세속의 욕망은 어느 새 소리없이 흘어지고 금방이라도 해탈의 문이 열리는 듯한 환상 속으로 빠져든다.

각박한 화색 도시를 떠나 내 마음의 꽃담 여행, 곳곳마다 선조들의 인품과 향기가 절로 느껴졌다. 물질과 효율, 경쟁과 속도로 규정되는 현대에서 찬찬히 꽃담을 바라보면서 느림의 미학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멋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는가.

사무치는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지금, 그 많던 꽃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쉬움이 교차된다. 봄이 오면 담쟁이덩굴이 휙감고 가을이 오면 빨간 흥시와 낙엽으로 단장하던 나지막한 꽃담은 시멘트 담과 아파트에 밀려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삶이 더 추락하고 황폐해지기 전, 꽃담 달은 향기로운 삶이고 싶다.

문득,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욕심을 버리며 산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나그네는 늘 꽃담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반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배우면서 희망을 얘기하며, 한 박자 건너가는 마음을 통해 가슴에 쌓인 원한과 저린 기억마저도 저 멀리 몰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 꽃담, 저 꽃담은 '버림은 소유의 끝이 아닌, 무소유의 절정'이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인다.

도도한 물결에 이 조그만 종이 조각배를 접어 꽃담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살포시 띄워 보내는 오늘. 애써 서두르지 않고 한 뼘의 여유를 지닌 채 세상의 파고를 무사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님 오시는 길목에 나지막한 화초담 하나 쌓으며 '다운 시프트'(Down Shift)로, 앙증맞은 굴뚝 하나 곁에 두고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한다.

앙증맞은 굴뚝 하나 곁에 두고 하심(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하며 '슬로 시티(Slow City)'로 조용히 살고 싶다. 조심조심 두 손 모아 치성을 드리오니 천지신명을 향한 '무심(無心)과 무욕(無慾)'의 희망 비나리이다.

주제_ 우수상
글 | 이종근

(활동 국가: 한국)